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문 은 미[†]

최 명 선

동신대학교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지대하다. 특히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적 특성안에서 부모와의 분화수준이 부모자녀관계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대학(원)생 538명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로는 부모화 경험 척도, 자아분화 척도,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의 통합이 정서적 부모화와 주체성, 정서적 부모화와 자기수용성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정서적 부모화와 미래확신성, 정서적 부모화와 목표지향성, 정서적 부모화와 친밀성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정서적 단절이 불공평과 주체성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가족퇴행이 불공평과 주체성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화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있어 자아의 통합,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매개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상담 장면에서는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을 분화할 수 있도록 돋는 상담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주요어 : 부모화, 부모화 경험, 자아분화, 자아정체감

* 2007학년도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 문은미,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서라 4차A 401-1203

Tel : 016-832-7163, E-mail : anne332@naver.com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통한 자아정체감 확립을 이루는 시기이다(김성경, 2003).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대부분 학업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형성을 위한 물리적·정서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자아정체감 형성 등 발달과 업을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한 이후로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아정체감이란 개체로서의 실체인 자아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신체적, 대인적, 사회적, 문화적 등의 과정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관성 있는 자기를 형성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박아청, 1990). 성인기 타인과 올바른 관계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아정체감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정서적 독립관련 변인, 양육관련 변인, 사회적 지지관련 변인 등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김동배, 권중돈, 1998; 김형태, 1989; 김희영, 1986; 이승국, 1999; 이차선, 1998; Campbell, Adams, & Dobbs, 1984; Greenberg, Seigel, & Lietch, 1983; Hoffman, 1987, 1984; Hoffman & Weiss, 1987; Josselson,

1988; Lopez, Campbell & Watkins, 1988). 이러한 요인 중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도구일수밖에 없다.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유지되는 지속적인 관계이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이다. 만약, 부모자녀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는다면 자녀는 평생 동안 자신 및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형성을 이루기 어려우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오남, 김경신, 1994).

청소년은 부모의 애정, 보호, 통제로 인해 정서적 발달을 이루고, 부모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자녀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 인식, 성인의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한다(김영희, 최명선, 2001).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가정에서 자녀의 개성과 가족간 유대감과 안정적인 관계를 동시에 형성하게되면 자녀의 자율성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정체성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Hauser & Bowlds, 1990; Campbell, Adams, & Dobbs, 1984; Carlson, Cooper & Hwu, 1990; Cooper & Grotewant, 1989; Hoffman, 1984; Hoffman & Weiss, 1987). 또한,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수용하며 가족간 상호작용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존을 함께 경험하면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자녀의 정체감이 형성된다(배제현, 1993; 송명자, 1995; 송설희, 1993). 최근 문은미와 최명선(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정서적 친밀감을 적절하게 경험한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한다고 보고 한 바 있다(Grotewant & Cooper, 1985). 그러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다면 약물, 대인관계문제, 학업문제 등 부적응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된다(Bernard, 1981; Campbell, Adams, & Dobbs, 1984;

1) 본 연구에서는 하위변인으로 박아청(1990)이 제시한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체성은 능력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를, 자기수용성은 자신감을 갖고 자신에 대한 신뢰하는 정도를, 미래확신성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른 희망의 정도를, 목표지향성은 주어진 과업의 수행 또는 실현 의지의 정도를, 주도성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의 정도를, 친밀성은 집단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노출의 정도를 의미한다.

Enright, Lapsley, Dricas & Fehr, 1980; Hoffman, 1984; Hoffman & Weiss, 1987; Marcia, 1980). 또한, 개인의 사고와 정서 분리 능력과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정도를 의미하는 자아분화²⁾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Bowen, 1976).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부모역할일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별다른 준비나 교육 없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며,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부모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나 간혹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녀에게 자신의 역할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당연한 것처럼 자녀가 부모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는 어린시기부터 부모의 신체적 · 정서적 상태를 돌보는 데 길들여져 자신의 욕구는 충족하지 못하고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화(parentification)³⁾’된자녀(Boszormenyi-Nagy &

2) 본 연구에서는 하위변인으로 제석봉(1989)이 제시한 인지 ·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지 · 정서적 기능은 지적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화 되었는가의 정도를, 자아의 통합은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가족투사는 부모의 미분화된 특성을 얼마나 투사하는지의 정도를, 정서적 단절은 부모나 자기 자신의 과거로부터 부정적인 방법으로 단절하려는 경향의 정도를, 가족퇴행은 가정의 위기상황에서 가족구성원들이 역기능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3) 부모화(parentification)란 어린 시기부터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맡게 되는 부모자식 간의 역할

Spark, 1973)가 된다.

부모화 경험은 성장기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역할과 과다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하며 (김용태, 2000),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으로 구분 된다. 물리적 부모화는 가정에서 집안일, 가족을 돌보는 일을 했는지 등을, 정서적 부모화는 가족을 위해 걱정, 가정에서 어른처럼 중간역할을 했는지 등을, 불공평은 문제만 생기면 자신이 휘말리거나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등을 의미한다(Jurkovic & Thirkield, 1999). 부모화 경험 변인 연구에 의하면, 부모화된 자녀들은 그들 부모의 부모가 되어 자신의 물리적 · 정서적 욕구를 희생하면서 가족과 다른 가족의 물리적 · 정서적 필요를 돌보게 된다. 이런 자녀는 자신의 나아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책임감, 자율성 등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때때로 외부로부터 좋은 강화를 받기도 한다(문정덕, 2006). 따라서, 부모화된 자녀는 어린시기부터 유능하고 매우 적응적인 아이처럼 보이므로 심리 및 행동의 위험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조은영, 2004; Minuchin, 1974).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부모화 경험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고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부모화 경험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자녀관계에서 자아분화를 제대로 이루게 된다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학교생활 적응 등을 통해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적응행동을 유발하는 등 건강한 발달을 이루기

전이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변인으로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제시한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어렵다(문정덕, 2006; 이신숙, 2000; 전귀연, 1994; 전춘애, 1994; Bowen, 1978). 이처럼 개인의 부모와의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자아분화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변인이다. 자녀는 부모와 정서적으로 융합되기 쉬워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대로 지각하게 하게 될 우려가 있다(문희선, 1995). 이러한 경우 정서적 부모화로 인해 자아의 통합과 가족투사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 된다. 특히 ‘효(孝)’와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경우 효도라는 명목으로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과도하게 보살피는 역할 전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김의철(2003)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서구문화권에서는 평등이나 자율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우리문화권에서는 권위와 양보, 겸손, 헌신 같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이동희, 1999; 최봉영, 1996; Kim, Youn, & Choi, 2001).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게 되어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를 베풀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관계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책임감은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한 이후까지도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이런 부모자녀의 특성과 자아분화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역할을 명확히 규명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인 초기에는 원가족에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떠날 것인가와 심리적 독립의 균형을 이루면서 부모와 어떻게 친밀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과제를 가지는데(Williams, 1981, 1982), 가족과의 분리

나 개별화 이전에 가족 간의 친밀감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한다(Bowen, 1976).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는 부모자녀관계를 바탕으로 자아분화와 자아 정체감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옥경희, 1999). 가족과의 분화가 잘 된 개인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분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개인은 원가족에게 융합되어 있고 의존적이며, 주위 사람들의 감정이나 반응에 민감하여 역기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김정택, 심혜숙, 1992; Archer & Waterman, 1988; Bowen, 1978). 부모와의 건강한 분리를 이룬 경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자신과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이러한 신념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타인과 관계를 잘 유지하며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다(Bowen, 1978). 반면, 부모와의 건강한 분리를 이루지 못하면 가짜 자기를 발전시키며, 동질화 압력이 강하여 정체성이 약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감정의 힘이나 타인의 압력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Bowen, 1978; Kerr & Bowen, 1988). 개인의 자아분화는 미분화된 가족자아 덩어리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 충동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며, 자기충동적 정서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하고 가족자아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다(신영규, 1994; Vanderkooi 와 Handelman, 1984). 특히, 정체감의 핵이 형성되는 발달초기단계인 유아기에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신뢰감은 주변에서의 경험을 일관성 있는 관점에서 받

아들이도록 한다. 유아기 이후 정체감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동일시 과정을 거쳐서 발달된다. 청소년들에게는 수용적이고 결속력이 강한 가정에서 안정된 가치관과 일관된 태도를 갖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이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정의된 자신을 경험하도록 한다(서봉연, 1975). 성장기 자녀가 부모역할을 배우고, 실천해 보면서 자기에 대한 유능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돌보는 능력과 관련된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키는 기회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김용태, 2000). 다만, 가족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는 행동 같은 결여된 역할을 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부모의 권한이 자녀에게 분배되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역할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김유숙, 1998, 김용태, 2000), 이는 부모와 자녀 각자의 역할관계에 있어 적절한 경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하며, 건강한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건강한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Blos, 1979). 심리적 독립은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확립 등 성인기로 원만하게 발달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다름없이 성장하였으나, 심리사회적 수준은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성인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한 독립은 부모와의 일방적인 단절을 의미하지 않고, 부모와의 연결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 되는 것이다(Quintana & Kerr, 1993). 청소년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과 분리는 정상적인

가족생활의 특징(Steinverg, 1990)이며, 이러한 갈등과 분리는 부모와의 독립을 갈구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청소년의 성향 때문에 부모자녀관계가 갈등적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생활자원개발연구소, 2005).

이상의 선행연구를 볼 때,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은 많으나,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발달과의 관계를 중재해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특히, 부모화 경험 변인 연구는 최근 몇몇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화 경험의 경우 서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고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관계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보고되고 있다. ‘효’를 강조하는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 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책임에 따른 과업완수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어 부담감은 커질 것이다.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져 자아분화와 자아정체감을 이루는 것이 어려워 질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우리나라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역할을 규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장기에 경험한 물리적 희생, 정서적 좌절, 불공평성은 한 개인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자아분화가 부모자녀변인과 심리사회적 적응 사이에서 매개효과임을 예측함을 나타내는 변인임을 보고한 연구(권미애 등, 2005; 김정희, 2007; 남상철, 유영달, 2007; 이운기, 2005)를 살펴보더라도 자아분화는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 있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를 매개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위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화 경험은 자아정체감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화 경험이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분화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분화는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 자아정체감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며,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 자아정체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화 경험에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속에서 자아분화의 역할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의 하위변인을 중심 변인으로 두고 매개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부모화 경험의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과 자아정체감의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인지·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장기 가정에서의 부정적인 과거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 부모자녀관계 및 부모와의 건강한 분리를 돋는다면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부모화 경험, 자아분화, 자아정체감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 부모화 및 부모자녀관계 영역에 학문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화 경험, 자아분화, 자아정체감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아분화는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1)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인지·정서적 기능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2)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의 통합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3)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족투사는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4)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정서적 단절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5)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족퇴행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써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4년제 대학(원)생 538명이다. 연구 대상 표집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4년제 대학생에게 2007년 9월과 10월에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으며, 직접 및 간접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변인 | 구분 | N(%) | M | SD |
|----|---------|-----------|------|------|
| 성별 | 남 | 279(52.2) | - | - |
| | 여 | 254(47.8) | | |
| 연령 | 20세 미만 | 279(52.3) | - | - |
| | 21세-23세 | 121(22.7) | | |
| | 24세-26세 | 133(25.0) | | |
| 학년 | 1학년 | 231(44.8) | 2.17 | 1.30 |
| | 2학년 | 92(17.8) | | |
| | 3학년 | 110(18.2) | | |
| | 4학년 | 82(15.9) | | |
| | 대학원생 | 10(1.9) | | |
| | 휴학 | 7(1.4) | | |

※ 무응답에 따라 변인의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부모화 척도,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화 척도 FRS-A(Filial Responsibility Scale -Adult)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PQ(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Sessions & Jurkovic, 1986)를 토대로 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 개발한 FRS-A(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를 신주연(2003)과 조은영(2004)이 번안한 부모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을 측정하고자 했으며, 물리적(Instrumental) 부모화, 정서적(Emotional) 부모화, 불공평(Unfairness)의 3개 하위요인으로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Likert형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번안 과정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혀 그렇지 않았다

(1점)', '드물게 그랬다(2점)', '종종 그랬다(3점)', '매우 그랬다(4점)'의 4단계 Likert 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물리적(Instrumental) 부모화는 집안일을 했는지, 가족들 돌보기를 했는지, 집안의 돈 문제를 걱정했는지 등을 측정한다. 정서적(Emotional) 부모화는 가족들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걱정을 했는지, 가족들이 어려울 때 자신이 어른처럼 중간역할을 하거나, 문제만 생기면 자신이 휘말리거나 자신 때문이라고 걱정을 했는지 등을 측정한다. 불공평(Unfairness)은 가족들 중에서 자신만 소외되었고, 상호관계가 편안하지 않고, 자신만 희생이 되고, 가족 안에서 책임이 형평에 맞지 않았는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물리적 부모화 .67, 정서적 부모화 .76, 불공평 .74로 나타났다.

자아분화 척도

Bowen의 자아분화척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제석봉(1989)의 자아문화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문화 수준을 인지·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을 살펴보는 5개의 하위 척도로 나누었으며,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의 Likert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문화가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문화 하위 요인들의 측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지적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측정한다. 자아통합은 '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더 중시한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 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가족투사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에 대해 근심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부모의 미분화 특성을 특정자녀에게 얼마나 투사하는지를 측정한다. 정서적 단절은 '가정을 떠나는 것이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부모나 자기 자신의 과거로부터 부정적인 방법으로 단절하려는 경향을 측정한다. 가족퇴행은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각자의 본분을 다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가정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역기능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문화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인지·정서적 기능 .67, 자아의 통합 .48, 가족투사 .87, 정서적 단절 .74, 가족퇴행 .80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

박아청(1999)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내용을 약간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을 살펴보는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채점은 5점까지 Likert방식을 적용하였고,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으로 채점하였다. 채점결과 점수가 높은 경우에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정체감 하위 요인들의 측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성은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능력감, 즉 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를 측정한다. 자기수용성은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자신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미래확신성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시간적 경과에 대한 희망의 정도를 측정한다. 목표지향성은 '나는 꾸준히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주어진 과업을 수행 또는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주도성은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신이 주도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친밀성은 '나는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집단속에서 한 구성원으로 자신의 노출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주체성 .85, 자기수용성 .89, 미래확신성 .86, 목표지향성 .83, 주도성 .87, 친밀성 .85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07년 9월 27일부터 11월 10일 까지 실시되었다. 남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설문지를 완성하면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소요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53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부모화 경험, 자아분화,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인인 부모화 경험과 매개변인인 자아분화, 그리고, 종속변인인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을 중심변인으로 보고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의 세 가지 단계의 접근모델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한 다음,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한다. 이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분석단계별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위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자아분화가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 사이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자아분화의 매개적 변인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인 부모화 경험이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부모화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자아정체감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화 경험과 매개변인인 자아분화를 동시에 투입한 후, 독립변인인 부모화 경험이 종속변인인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다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의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VIF 계수가 1.21-2.11로 10보다 적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의 하위변인(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인지 ·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즉, 독립변인인 부모화 경험과 매개변인인 자아분화, 종속변인인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각각의 하위변인을 중심변인으로 분석하였다.

주요변인 상관관계

주요변인 상관관계 결과는 문은미와 최명선

(2008)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략고자 한다.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독립변인인 부모화 경험의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이 종속변인인 자아정체감의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의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의 통합, 자기수용성, 가족퇴행이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인지·정서적 기능과 가족투사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자아분화의 하위변인별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인지·정서적 기능의 매개효과

인지·정서적 기능은 독립변인인 부모화 경험 하위변인과 종속변인인 자아정체감 하위변인에 대해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자아의 통합의 매개효과

독립변인인 정서적 부모화가 매개변인인 자아의 통합에 미치는 영향력($\beta=.26,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아정체감에 대한 각 하위변인별 영향력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3을 살펴보면, 부모화 경험이 주체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30, p<.001$)도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자아의 통합이 주체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17, p<.05$)이 유의하였고, 정서적 부모화가 주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에서 사라지지는 않고 영향력이 줄어들기만 하여($\beta=.30, p<.001 \rightarrow \beta=.17, p<.05$) 자아의 통합이 정서적

부모화와 주체성에 미치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정서적 부모화가 자기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18, p<.01$)도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자아의 통합이 자기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13, p<.05$)이 유의하였고, 정서적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에서 사라지지는 않고 영향력이 줄어들기만 하여($\beta=.18, p<.01 \rightarrow \beta=.13, p<.05$) 자아의 통합이 정서적 부모화와 자기수용성에 미치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정서적 부모화가 미래확신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17, p<.001$)도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자아의 통합이 미래확신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25, p<.001$)이 유의하였고, 정서적 부모화가 미래확신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전 사라져($\beta=.17, p<.001 \rightarrow$ 사라짐) 자아의 통합이 정서적 부모화와 미래확신성에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정서적 부모화가 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17, p<.01$)도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자아의 통합이 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16, p<.001$)이 유의하였고, 정서적 부모화가 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전 사라져($\beta=.17, p<.001 \rightarrow$ 사라짐) 자아의 통합이 정서적 부모화와 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정서적 부모화가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13, p<.05$)도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자아의 통합이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24, p<.001$)이 유의하였고, 정서적 부모화가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전 사라져($\beta=.13, p<.05 \rightarrow$ 사라짐) 자아의 통합이 정서적 부모화와 친밀성에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표 2. 자아의 통합 매개효과

|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β | 효과 |
|------|-------------|------------|------------|--------|
| 1 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 정서적 부모화 | 자아의 통합(매개) | .26** |
| 2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정서적 부모화 | 주체성 | .30*** |
| 3 단계 | 독립변인 | 정서적 부모화 | 주체성 | .17* |
| | 매개변인 → 종속변인 | 자아의 통합(매개) | 주체성 | .31*** |
| 1 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 정서적 부모화 | 자아의 통합(매개) | .26** |
| 2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정서적 부모화 | 자기수용성 | .18** |
| 3 단계 | 독립변인 | 정서적 부모화 | 자기수용성 | .13* |
| | 매개변인 → 종속변인 | 자아의 통합(매개) | 자기수용성 | .09* |
| 1 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 정서적 부모화 | 자아의 통합(매개) | .26** |
| 2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정서적 부모화 | 미래확신성 | .17*** |
| 3 단계 | 독립변인 | 정서적 부모화 | 미래확신성 | -.09 |
| | 매개변인 → 종속변인 | 자아의 통합(매개) | 미래확신성 | .25*** |
| 1 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 정서적 부모화 | 자아의 통합(매개) | .26** |
| 2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정서적 부모화 | 목표지향성 | .17** |
| 3 단계 | 독립변인 | 정서적 부모화 | 목표지향성 | -.08 |
| | 매개변인 → 종속변인 | 자아의 통합(매개) | 목표지향성 | .16** |
| 1 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 정서적 부모화 | 자아의 통합(매개) | .26** |
| 2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정서적 부모화 | 친밀성 | .13* |
| 3 단계 | 독립변인 | 정서적 부모화 | 친밀성 | .01 |
| | 매개변인 → 종속변인 | 자아의 통합(매개) | 친밀성 | .24*** |

*** $p<.001$, ** $p<.01$, * $p<.05$

가족투사의 매개효과

가족투사는 독립변인인 부모화 경험 하위변인과 종속변인인 자아정체감 하위변인에 대해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

독립변인인 불공평이 매개변인인 정서적 단절에 미치는 영향력($\beta=-.18$, $p<.05$)이 통계적으로

로 유의하였고, 불공평이 주체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26$, $p<.001$)도 유의하였다. 표 3를 살펴보면,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자아의 통합이 주체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16$, $p<.05$)이 유의하였고, 불공평이 주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에서 사라지지는 않고 영향력이 줄어들기만 하여($\beta=-.26$, $p<.001 \rightarrow \beta=-.16$, $p<.05$) 정서적 단절이 불공평

표 3. 정서적 단절 매개효과

|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β | 효과 |
|------|-------------|------------|------------|---------|
| 1 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 불공평 | 정서적 단절(매개) | -.18* |
| 2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불공평 | 주체성 | -.26*** |
| 3 단계 | 독립변인 | 불공평 | 주체성 | -.16* |
| | 매개변인 → 종속변인 | 정서적 단절(매개) | 주체성 | -.13* |

*** $p<.001$, ** $p<.01$, * $p<.05$

표 4. 가족퇴행 매개효과

|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β | 효과 |
|------|-------------|----------|--------------|---------|
| 1 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 불공평 | 가족퇴행(매개) | -.44*** |
| 2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불공평 | 주체성 | -.26*** |
| 3 단계 | 독립변인 | 불공평 | 주체성 | -.16* |
| | 매개변인 → 종속변인 | 가족퇴행(매개) | 주체성 | .23* |
| 1 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 불공평 | 가족퇴행(매개) | -.44*** |
| 2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불공평 | 자기수용성 | -.20*** |
| 3 단계 | 독립변인 | 불공평 | 자기수용성 | -.01 |
| | 매개변인 → 종속변인 | 가족퇴행(매개) | 자기수용성 | .29*** |
| 1 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 불공평 | 가족퇴행(매개) | -.44*** |
| 2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불공평 | 미래확신성 | -.17** |
| 3 단계 | 독립변인 | 불공평 | 미래확신성 | -.09 |
| | 매개변인 → 종속변인 | 가족퇴행(매개) | 미래확신성 | .17* |
| 1 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 불공평 | 가족퇴행 (매개) | -.44*** |
| 2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불공평 | 목표지향성 | -.18** |
| 3 단계 | 독립변인 | 불공평 | 목표지향성 | -.08 |
| | 매개변인 → 종속변인 | 가족퇴행(매개) | 목표지향성 | .15* |
| 1 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 불공평 | 가족퇴행(매개) | -.44*** |
| 2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불공평 | 친밀성 | -.22*** |
| 3 단계 | 독립변인 | 불공평 | 친밀성 | -.10 |
| | 매개변인 → 종속변인 | 가족퇴행(매개) | 친밀성 | .21*** |

*** $p<.001$, ** $p<.01$, * $p<.05$

과 주체성에 미치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가족퇴행의 매개효과

독립변인인 불공평이 매개변인인 가족퇴행에 미치는 영향력($\beta=-.44,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를 살펴보면, 불공평이 주체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26, p<.001$)도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가족퇴행이 주체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16, p<.05$)이 유의하였고, 불공평이 주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에서 사라지지는 않고 영향력이 줄어들기만 하여($\beta=-.26, p<.001 \rightarrow \beta=-.16, p<.05$) 가족퇴행이 불공평과 주체성에 미치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불공평이 자기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20, p<.001$)도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가족퇴행이 자기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29, p<.001$)이 유의하였고, 불공평이 자기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전 사라져($\beta=-.20, p<.001 \rightarrow$ 사라짐) 가족퇴행이 불공평과 자기수용성에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불공평이 미래확신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17, p<.001$)도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가족퇴행이 미래확신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17, p<.01$)이 유의하였고, 불공평이 미래확신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전 사라져($\beta=-.17, p<.001 \rightarrow$ 사라짐) 가족퇴행이 불공평과 미래확신성에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불공평이 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18, p<.01$)도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가족퇴행이 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15, p<.05$)이 유의하였고, 불공평이 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전 사라져($\beta=-.18, p<.01 \rightarrow$ 사라짐) 가족퇴행이 불공평과 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불공평이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22, p<.001$)도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가족퇴행이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21, p<.001$)이 유의하였고, 불공평이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전 사라져($\beta=-.22, p<.001 \rightarrow$ 사라짐) 가족퇴행이 불공평과 친밀성에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검증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모형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의 통합, 자기수용성, 가족퇴행이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인지·정서적 기능과 가족투사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변인 간 경로 가운데 자아의 통합, 자기수용성, 가족퇴행의 매개효과를 유의한 변인 중심으로 도식화한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분화의 하위변인 중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는 제외하였으며, 자아의 통합,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매개경로를 중심으로 도식화하였다. 자아의 통합은 정서적 부모화와 주체성, 정서적 부모화와 자기수용성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정서적 부모화와 미래확신성, 정서적 부모화와 목표지향성, 정서적 부모화와 친밀성에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정서적 단절은 불공평과 주체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가족퇴행은 불공평과 주체성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불공평과 자기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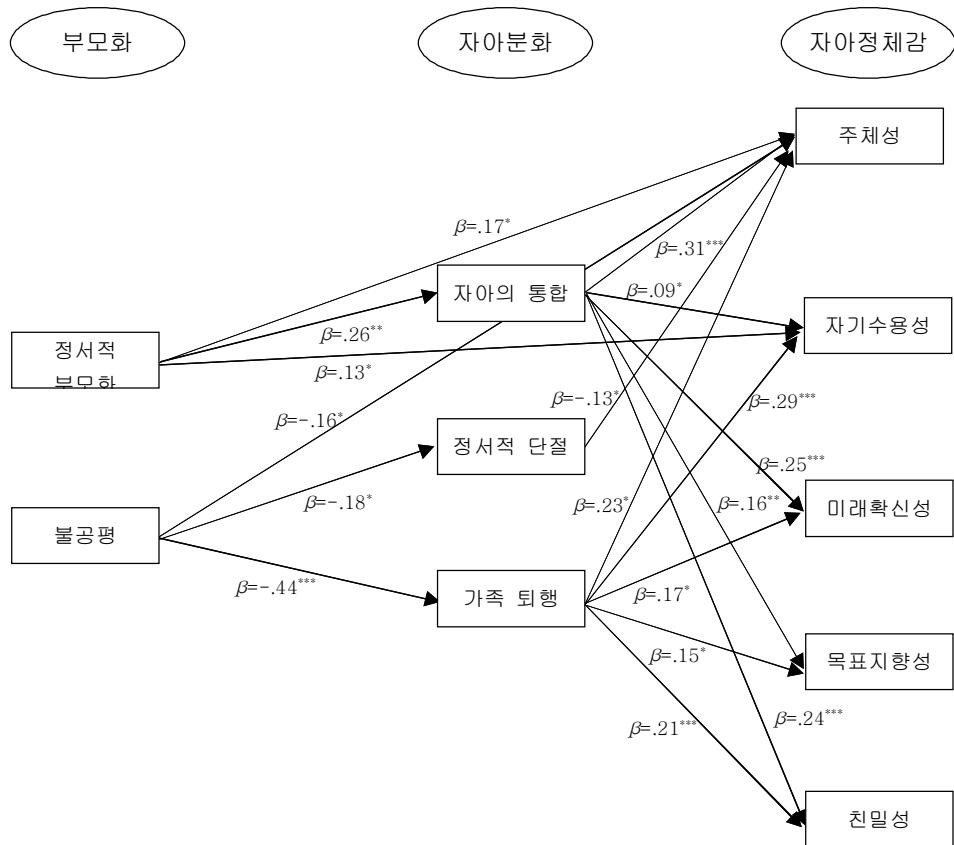


그림 1.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모형

성, 불공평과 미래확신성, 불공평과 목표지향성, 불공평과 친밀성에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적 역할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화 경험, 자아분화, 자아정체감의 상관을 분석하고,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화 경험의 하위변인(물리

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인지·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종속변인인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독립변인인 부모화 경험과 매개변인인 자아분화, 종속변인인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각각의 하위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요약·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단, 선행연구(문은미, 최명선, 2008)에서 제시하고 논의한 중심변인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

고자 한다.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각 하위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매개효과를 보인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은 자아의 통합,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이었다.

자아의 통합은 정서적 부모화와 주체성, 정서적부모화와 자기수용성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정서적 부모화와 미래확신성, 정서적 부모화와 목표지향성, 정서적 부모화와 친밀성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가정에서 자신의 욕구보다 부모나 가족의 욕구를 위해 정서적 가장 역할을 많이 경험한 경우 자아정체감 형성을 더 잘 이룰 수 있는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압력을 받을 때 자신에 대해 안정된 느낌을 받는 경우 자아정체감을 더 잘 형성 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서적 부모화를 경험함으로써 습득된 책임감과 유능감 등이 가족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친밀성 형성을 긍정적으로 이끌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족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찾는 개별화 과정이 부모와의 관계를 지원적이고 밀접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는 정체감 형성과정과 공통된 속성을 지닌다는 연구(옥경희, 1999), 가족갈등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부모자녀간 역할이나 형제자매간 역할이 재정립되어 형제자매들은 가족 위기조절기술을 배우고,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책임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여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문정덕, 200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아탄력성 등 개인의 심리적 보호요소가 가정의 위험요소와 심리적 적응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오영희, 2007; 유성경, 홍세희, 최보윤,

2004; 신현숙, 2003; 유성경, 심혜원, 2002, 양국선, 장성숙, 2001; Masten, 2001; Garmezi, 1993)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관계에서 정서적 가장역할을 하게 되었더라도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과 느낌, 행동의 일관성을 지각하는 경우 자아정체감 형성을 잘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며 가정에서 심리적 가장 역할을 하는 등 부모화 경험을 많이 하고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대학생에게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아의 통합을 이루도록 돋는다면, 자아정체감 형성을 보다 잘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서적 부모화와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친밀성의 관계에서는 자아의 통합이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형성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목표를 향한 의지를 갖는 데에 있어 자신과 타인 속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통합 과정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적 단절은 불공평과 주체성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주체성 발달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분화할 수 있도록 돋는다면, 자신의 유능성을 통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만 희생하거나 소외된 경험을 한 경우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기 어렵지만, 가정의 중요성이나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을 통한 건강한 분리를 돋는다면 주체성 발달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자유친성정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이운기, 2005; 최인재, 200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모와 정서적 융합이 심한 개인은 가족과 긴장과 갈등을 감소하기 위해 가족과 반항이나 가출 등 부정적으로 단절하려고 한다(Bowen, 1978). 가정에서 헌신하며 불공평한 경험을 견디어 내는 것도 가족과의 긴장과 갈등을 감소하기 위해 감당하였을 것이다. 이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부모와의 관계개선을 도와 정서적 단절 수준을 높여준다면 주체성 발달을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와 친밀한 관계형성을 돋는다면 부모와의 자연스러운 분화가 매개가 되어 주체성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장성숙(2004)은 상담장면에서 내담자의 증상이나 문제는 원활하지 못한 인간관계에서 기인하므로, 내담자가 인간관계를 잘 맷을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내담자에게 가능한 한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상을 살려주는 다각적인 상담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장성숙, 2003, 2004). 이처럼 성장기에 불공평한 경험을 많이 경험했더라도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통해 건강하게 분화를 이루도록 돋는다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담현장에서 불공평한 경험을 많이 하고 주체성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형성을 돋는 것이 주체성 발달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족퇴행은 불공평과 주체성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났다. 또한, 불공평과 자기수용성, 불공평과 미래확신성, 불공평과 목표지향성,

불공평과 친밀성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자아정체감 형성과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유혜경, 2004; 장사라, 2001)와 개인의 부적응 행동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갈등이 심할 때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Campbell, Adams, & Dobbs, 1984; Hoffman, 1984; Hoffman & Weiss, 198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가정에서 불공평한 경험을 많이 한 경우 주체성 발달 형성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가족퇴행이 주체성 발달에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가정내에서 자녀가 지속적으로 불공평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에는 가정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돋는다면 자녀는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퇴행이 불공평과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친밀성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가족 내에서 스트레스상황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불공평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퇴행적인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의 부적응이 심화되며,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정 내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의사결정이나 스트레스 대처 과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돋는 가족 상담의 필요성다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형성,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실행 등 성공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부모의 역할

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자녀답게 자녀의 도리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욕구가 결핍된다면 자녀는 건강하게 발달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수행해 자녀가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동일시를 이루고, 적절하게 욕구 충족을 하도록 양육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박영신, 김의철, 2003).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에서 효의 측면과 조화로운 관계형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녀의 지나친 희생이나 혼신을 동반한 관계형성은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과도한 부모역할을 한다거나, 자녀가 부모역할을 대신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둘 다 자녀의 발달에 심각한 위험을 주게 될 것이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때 개인은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발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형성과 건강한 분리는 자신에 대한 건강한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여 자신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다. 부모화 경험(불공평)과 자아정체감(주체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정서적 단절은 부모와의 분리과정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야 함을 시사

한다. 부모와의 갈등과 분리는 정상적인 특징 (Steinberg, 1990)이며, 자아분화를 이를 때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감을 유지하면서 자율성 발달을 촉진한다면 주체성 등 자아정체감(주도성을 제외한 전 하위변인)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부모화 경험(정서적 부모화와 불공평)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 할을 하고 있는 자아의 통합과 가족퇴행의 발달을 돋는다면 청년기 자아정체감 형성을 보다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감과 유능성을 갖고, 가족내에서 건강하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나 자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혼신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정에서 부모와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효과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나 자녀 모두 바쁜 현대에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가족 친화활동을 통한 가족간 정서적 유대를 강화 및 친밀한 관계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가족친화활동프로그램이 질적으로 개발되어 보급시키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일 것이다.

셋째, 인지 · 정서적 기능과 가족투사는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에 있어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시기임을 감안할 때, 부모의 간섭보다는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동시에 부모에게 의존해야하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 인지 · 정서적 기능의 경우 가족과의 인지적으로는 가족과 분화가 되었으나, 정서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지향하여 그 효과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족투사의 경우 청소년의

가족의 미분화된 특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으로는 인식할 수 있으나, 실제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정서적 친밀감의 영향력이 그 효과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집안에 효자 효녀가 나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처럼 부모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만 하면 자신의 건강한 발달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이로울 수 없다. 자녀로 하여금 ‘효’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책임감을 갖도록 양육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 단기적으로는 적응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심리적 부적응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조은영, 정태연, 2004; 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 Chase, 1999). 또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하는 부모사랑은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효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다. 이처럼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지만, 자신의 욕구조차 스스로 채우지 못하고,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데에서 역기능적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장기에 부모의 미성숙, 가족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과도한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돋는다면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부모자녀관계에서 청소년 자녀가 정서적 유대감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자율성을 획득하고, 부모와 정서적 연결감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분화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부모화 경험의 서구와 우리나라 차이점을 발견한 것이다. 서구에서는

자율성이 강조되는 문화적 특성으로 부모화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에는 심각한 정신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과 자신의 욕구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실제적인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를 강조하여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과 같은 관계지향적인 문화적 특성으로 성장기의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비록 과도할지라도 어느 정도 적응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인간의 심리를 접근할 때 대상의 문화적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몇몇 연구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에게 있어 건강한 정체감 형성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부모와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부모는 부모역할을, 자녀는 자녀역할을 훌륭하게 해내 부모 자녀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자녀의 도리를 잘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돋는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고식 응답형태를 취했기에 불성실한 응답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과거의 경험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다양한 변인으로 인해 과

거의 경험 그대로를 보고하였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대상과 측정하고자하는 변인의 특성상 발달단계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각 변인간의 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각 이론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및 경로계수 제시 등 체계화된 방법론을 적용해 볼 필요성에 있음에도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셋째,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모화 경험, 자아분화,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우리나라 전체 청년 수준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 부모화 경험과 같은 과거 경험을 연구할 때에는 종단연구로 접근함이 타당하고 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화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변인 연구를 위해 부모-자녀간, 부부간을 쌍으로 한 연구와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효의 측면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계중심의 우리나라 문화에서 적응적인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부모와 자녀 모두의 욕구가 잘 충족되는 적응적이고 조화로운 관계형성을 위한 부모상담과 청소년 상담 장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미애, 김필숙, 박지현, 김태현 (2005). 미혼성

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와 부모-자녀간 정서체계 역동성이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11), 31-48.

김성경 (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김영희, 최명선 (2001). 의미분석법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이미지 연구. *놀이치료연구*, 4(2), 3-14.

김오남, 김경신 (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106-118.

김유숙 (1988).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이정숙, 김윤희 (2000).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 반응 특성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9(4), 429-445.

김용태 (2000).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김정택, 심혜숙 (1992). Murry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모델.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인간이해*, 13, 33-46.

김정희 (2007).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 부모와의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 103-138.

김혜온, 이진순 (2006).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2), 21-40.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2002). 발달단계로서의 '칠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학생생활연구*, 27, 257-283.

남상철, 유영달 (2007).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 및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 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51-75.

문은미, 최명선 (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

- 화가 청년기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5(2), 103-122.
- 문정덕 (2006).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과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희선 (1995). 어머니의 자아분화수준과 자녀양육태도의관계: Bowen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 (1999).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40-162.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30-40.
- 배제현 (1993).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과정과 자아정체감의 발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생활자원개발연구소 (2005). 남녀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갈등이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 *생활자원개발연구*, 7, 1-21.
- 서봉연 (1988). 자아정체감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설희 (1993).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영규 (1994). 가족체계유형과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2003). 가정환경 역경과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보호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 청소년상담연구, 11, 71-84.
- 양국선, 장성숙 (2001).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야간실업고등학교 근로청소년 대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127-148
-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 옥경희 (1999). 청년기의 자아분화 정도 및 개체화 유형과 자아정체감 발달. *학생생활연구*, 6, 17-34.
- 유성경, 이소래 (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87-205.
- 유성경, 홍세희, 최보윤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한국교육심리학회*, 18(1), 393-408.
- 유혜경 (2004).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남자 중학생 자아분화 수준과의 관계.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숙 (200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23-43.
- 이윤기 (2005). 자아분화와 우리의식을 매개로 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사라 (200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분화도와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성숙 (2003). 한국문화와 현실역동상담의 상담자-내담자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47-160.

- 장성숙 (2004). 한국문화에서 상담자의 초점: '개인중심' 또는 '역할중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와 성격, 18(3), 15-27.
-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43-62.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귀연 (199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인재 (2004).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재석 (1982).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Archer, S. L., & Waterman, A. S. (1988). Psychological individualism: Gender difference of gender neutrality? *Human Development*, 31, 65-8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1182.
- Bernard, H. S. (1981).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A review of some empirical findings. *Adolescence*, 16, 349-358.
- Boszormenyi-Nagy I., & Spark, G.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owen, M. (1976). Therap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pp.42-90). New York: Garden.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375-388.
- Carlson, C., Cooper, C., & Hwu, J. (1990). *Predicting school achievement in early adolescence: The role of family proces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meeting of the SRA, Atlanta, GA.
- Campbell, E., Adams, G., & Dobson, W. (1984). Familial correlates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A study predictive utility of connectedness and Individuality in family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6), 509-525.
- Cooper, C. R., & Grotevant, H. D. (1989).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the family and adolescents' self and relational competenc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 Chase, N. D. (1999). An Overview of theory, research, and societal issues. In, N. D. Chase(Ed.).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3-33.
- Enright, R. D., Lapsley, D. K., Drivas, A. S. & Fehr, L. A. (1980). Parental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utonomy and ident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529-546.
- Fullinwider-Bush, N., & Jacobitz, D. B. (1993).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ocess*, 32(1), 87-103.
- Garm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form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Hauser, S. T., & Bowlds, M. K. (1990). Stress, coping, and adaptation. In S. S. Feldman & G. R.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57-163.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45-257.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 Y.: W. W. Norton & Company.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Quintana, S. M. & Kerr, J. (1993). Relational needs in late adolescent separation-individu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 349- 354.
- Sta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pp.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Vanderkooi, I. K., & Handelman, M. M. (1984) Toward an integration of Jungian and Bowen perspectives on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6, 615-623.
- Williamson, D. S. (1981). Personal authority via termina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hierarchical boundary: A new stage in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441-452.
- Williamson, D. S. (1982). Personal authority in family experience via termina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hierarchical boundary: Part 3-Personal authority defined and the power of play in the change proces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8, 309-323.

원고 접수일 : 2008. 8. 12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0. 8

게재 결정일 : 2008. 11. 10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Ego-Identity

Eun-Mi Mun

Myungseon Choi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ego-identity.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538 undergraduate students from universities. The instruments of the study consisted of the FRS-A, a Korean version of the Adolescent Ego-Identity Scale, and the Korean-translated version of the Self-Differentiation Scale. Correlations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lf-integration par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are giving and subjectiv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are giving and self-acceptance. Moreover, self-integr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are giving and future-certainty, goal-orientation, and intimacy. Second, emotional dissolution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fairness and subjectivity. Third, family-regression par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unfairness and subjectivity.

Key words : parentification, self-differentiation, ego-identity